

주요공지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보수기금 약정/납부 현황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반석회	2,000	28	박병태	1,200	55	양영길	1,000	82	임소라	100
2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1,167	29	박애순	500	56	염기선	3,000	83	임영자	1,000
3	유스그룹	400	30	박재영	1,500	57	오경숙	5,000	84	장수지	1,000
4	성모회	5,000	31	박정훈	1,500	58	오석미	1,000	85	장중현	400
5	Vesta-Oh LLC	5,000	32	박화성	1,000	59	오용운	2,000	86	전광수	1,000
6	강식	1,200	33	방숙자	400	60	오현주 (부제님)	12,000	87	정명숙	300
7	곽신규	1,000	34	배인경	500	61	우성현	1,000	88	정진오	1,000
8	곽올리안나	200	35	백상헌	1,500	62	우영인	1,000	89	조순자	300
9	김도용	500	36	백영숙	1,000	63	유병기	3,000	90	조인	1,000
10	김삼식	1,000	37	변상민	1,000	64	육순재	3,000	91	채희백	5,000
11	김성일	1,500	38	변상원	1,000	65	윤석로 (부제님)	1,000	92	최영옥	1,000
12	김수완	5,000	39	변태용	4,000	66	윤준희	5,000	93	최영찬	2,000
13	김순옥	1,000	40	서경호	1,000	67	이광호	3,000	94	최완준	1,000
14	김안나	1,000	41	서정근	1,500	68	이기순	500	95	최승웅 (부제님)	5,000
15	김영필	2,000	42	성낙순	500	69	이막동	500	96	최진호	1,000
16	김정숙	300	43	성낙철	1,000	70	이문식	1,000	97	최현지	2,000
17	김태경	600	44	성순영	500	71	이보현	1,000	98	추승호	1,000
18	김진	1,000	45	성준엽	1,000	72	이성문	1,000	99	토레스 은식	2,000
19	나채국	1,000	46	손경진	300	73	이용문	2,000	100	하건철	1,000
20	나한복	1,000	47	손영렬	1,000	74	이용범 (신부님)	2,500	101	한상철	1,000
21	문형곤	100	48	손영수	1,000	75	이재구	1,000	102	한크리스토퍼	1,000
22	민병집	2,400	49	손중철	3,000	76	이재서	1,000	103	허종	1,000
23	박규희	300	50	손홍구	1,500	77	이중권	1,500	104	황분숙	500
24	박기호	1,000	51	신준호	1,200	78	이준원	100	105	황태진	1,000
25	박덕화	500	52	안을봉	1,000	79	이호용	1,000	106	익명 (1)	1,000
26	박동준	300	53	안청자	500	80	임문수	500	107	익명 (3)	140
27	박락준	2,000	54	안현정	1,500	81	임성주	1,000	108	미국신자 (63)	93,900

약정금액: \$249,807.43/\$300,000 (83.27%), 납부금액: \$184,835.43/\$300,000 (61.61%)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2025년  
11월 9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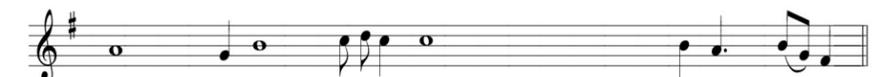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47,1-2.8-9.12

# 화답송 시편 46(45),2-3.5-6.8-9(© 5)



후렴. 강물이 즐기 즐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 제 2독서 코린토 3,9-11.16-17

# 복음 환호송 2역대 7,16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복음 요한 2,13-22

# 성가 입당 21 봉헌 215, 216 성체 498, 172 파견 232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준혁(베드로) - 최정인(아네스)
- 한석희(빈첸시오) - 한상철(빈첸시오)가족
- 김지준 - 성미카엘라
- 김경아(미카엘라) - 성미카엘라
- 남상휘(미카엘) 조영옥(아가다) - 가족
- 조상님들을 위하여 - 이용문(안드레아)가족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하여 - 사랑하올 어머니 Pr.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정테레사 - 박요안나
- 박지영(카타리나) - 가족
- 송민아(테레사) - 송광석(아오스팅)
- 송대건(안드레아) - 송광석(아오스팅)
- 김인자(로마나)의 구순 맞이 - 변인순(엘리사벳)
- 임태영(유스티노) 오주인(도미나) - 오토마스
- 오용운 토마스아퀴나스 - 오로사
- 하용무(테레사) 생신을 축하 하건철(안토니오) 영적 건강 임영자(안나) 영육간의 건강 노스브런스워 구역원들을 위해 - 하준석(마테오) 봉헌
- 임은호의 백일을 축하하며 - 가족
- 황태진(필립보) 황옥자(테레사)의 건강 - 한안나 가족, 김순옥(율리아)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301(143명)	
• 교무금.....	\$1,025	
최영옥(11)	유병기(10~12)	곽유리아나(11~12)
김영필(11~12)	박애순(5~12)	박덕화(11~12)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이를 버리지 마세요.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빵과 포도주 봉헌

- 11/09 최윤희리안나, 팽베로니카    11/16 오클레어, 김스텔라
- 11/23 최안토니아, 팽베로니카    11/30 최안토니아, 김안나

★ 친교 봉사 일정

- 11/16 피스브릿지    12/21 노스브런스워    1/18 럽거스    2/15 먼로
- 3/15 메타천+노스에디슨    4/19 사우스브런스워    5/17 썸머셋
- 6/21 에디슨    7/19 울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워

★ 꾸리아 월례회의

일시/장소: 11월 9일 미사후 / 지하 대회의실

★ 노스브런스워 구역모임

일시/장소: 11월 9일 (주일) 미사 후 / 친교실

★ 울드브릿지 구역 모임

일시/장소: 11/16일 미사후 / 친교실(예비자 교리실)

★ 전례분과 월례 회의

일시/장소: 11월23일 미사후 / 친교실

★ 레지오 마리에 ”시화전“

- 주제: 성모님께 드리고 싶은 나의 마음
- 일시/장소: 11월16일(주일) / 친교실
- 작품: 레지오 행동및 협조단원

★ 에디슨 구역 모임

일시/장소: 11월16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 방법 : 우편 또는 이러닝(동영상 강의) 중 선택
- 접수/마감 : uus.pauline.or.kr / 2026년 1월31일

★ 요셉회와 함께하는 2026년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단 모집

일시: 2026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4박5일  
 지도신부: 분당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  
 문의: 곽 엘리사벳(908-420-8386), 이서형 요안나(732-609-2904)



★ 제1독서 예제키엘 예언서 47,1-2.8-9.12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이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앞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코린토 3,9L-11.16-17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요한 2,13-22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위령 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